

AKP 여성운동에 대한 태도와 정책을 통해 본 튀르키예의 정치 이슬람 한하은

튀르키예에서 친이슬람정당 AKP(Adalet ve Kalkınma Partisi, 정의발전당)가 집권한지 만 20년이 된 이 시점에서, AKP의 이슬람주의(보수민주주의, 온건한 이슬람주의, 수동적인 세속주의)가 현재 잘 발현되고 있는지 AKP의 여성운동에 대한 태도와 정책 그리고 여성운동가들의 대응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아젠다 중에서 ‘여성운동’을 선택한 이유는 튀르키예 역사 속에서 세속주의가 우세할 때, 이슬람주의가 부흥할 때, 여성의 정체성은 이념의 중요한 상징이자 도구로 세속주의자와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성운동가들은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이념의 수호자로 자처했으며 여성 관련 정책에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AKP가 2002년 집권하면서 자신들은 여성운동을 지지하며 여성 관련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여성운동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여성단체에 큰 호응을 얻었지만 2021년 ‘여성보호협약’에서 튀르키예가 탈퇴한다는 일방적 대통령 행정명령에 여성들과 여성운동가들은 격분하고 있다. 이념의 차이로 함께 연합하지 못했던 세속주의 여성운동가들과 이슬람 여성운동가들은 AKP의 이슬람적 가치관이 중심이 된 여성 정책으로 인해 여성의 지위가 퇴보하자 이념을 뛰어 넘어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AKP가 목표했던 ‘보수민주주의’라는 이슬람주의는 AKP의 여성운동에 대한 태도와 정책을 볼 때, 민주주의는 보이지 않고 이슬람 종교만 남은 우려했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하은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이자 동 연구소 서아시아센터 공동연구원이다. <터키에서 정치 이슬람의 부상과 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로 2013년도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튀르키예의 정치 이슬람과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세속주의 국가 튀르키예에서 친이슬람정당 AKP 20년 집권에 따른 정치 이슬람 연구: AKP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터키에서 정치 이슬람과 히잡 착용 관계 연구: 에르도안 대통령 선출 이후, 여성운동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여성문제로 본 터키와 이집트의 정치 이슬람: 베일문제를 중심으로」, “To Veil or Not to Veil: Turkish and Iranian Hijab Policies and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등이 있다.

Date & Time: November 29, 2022. 12:00-13:00

Place: SNUAC Room 406 (4th Floor)